



'좌충우돌' 타이거즈

KIA 고척돔 첫 방문기



훈련 내내 천장 쳐다보며
플라이 볼 처리 공들였는데
실책 남발 원인은 인조잔디
천장 맞은 굴절 안타도 나와
나지완 이색 기록 주인공

KIA 타이거즈의 '좌충우돌' 고척스카이돔 첫 방문이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넥센 히어로즈와의 원정 3연전을 치렀다. 시범경기에서도 결승을 하지 못했던 동구장에서 첫 시리즈라 KIA 선수들은 긴장감 가득한 모습으로 고척스카이돔에 입장했다.

일단 첫날부터 동구장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 6일 서울에는 오후 내내 비가 계속됐지만 선수들은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 없이 계획된 스케줄대로 훈련을 진행했다. 하지만 훈련 시간 내내 천장을 올려보아 했던 선수들이다. 이날 KIA는 플라이 타구를 처리하는 훈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훈련 초반에는 여기저기에서 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익숙한 하늘이 아니라 지붕 철구조물 사이로 공을 찾느라 실수 연발이었다.

수비 실력으로는 소문이 자자한 김호영도 "공을 쫓는 게 어렵다. 오늘 경기를 하면서 외야에서 야수들이 많이 모일 것 같다"며 고척스카이돔 첫 훈련 소감을 언급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플라이 처리에서 KIA 선수들은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 이내 적응을 하면서 공을 잘 쫓았다. 일반 개방형 구장보다 타구 속도가 더 빠르지만,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플라이 처리가 오히려 까다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KIA 야수진을 곤혹스럽게 한 것은 하늘이 아닌 땅이었다. 올 시즌 마

산구장에 천연잔디가 깔렸고 삼성 라이온즈도 천연잔디의 새 구장으로 안방을 옮기면서 고척스카이돔은 유일한 인조잔디구장이다. 천연잔디 구장에서보다 땅볼 타구에 스피드가 더 붙는 만큼 3연전을 치르면서 내야진들이 진땀을 흘렸다.

실책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6일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주형과 7일 대신 자리를 지킨 강한울이 공보다 늦게 움직이거나 스타트는 빨리 끊었지만 발로 공을 차는 등 아쉬운 수비를 보여줬다. 동구장이기에 가능한 이색 기록도 작성됐다. 주인공은 KIA의 4번타자 나지완이었다.

7일 경기에서 나지완은 8회 1사1루에서 이날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나지완은

투수 이보근을 상대로 높게 공을 띄웠고, 넥센의 유격수와 3루수가 동시에 공을 쫓아 외야 지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좌익수까지 달려들었지만 공은 영뚱하게 내야 지역으로 떨어졌다. 수비수들은 물론 1루에 안착을 한 나지완까지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천장을 한참 올려보았다. 공이 경기장 천장에 맞고 굴절되면서 야수진들이 움직인 방향과는 반대로 낙하한 것이다.

이 타구는 좌전안타로 기록이 됐다. 고척스카이돔 그라운드룰에 따른 것이다.

내야 페어 지역에 관한 룰에 따르면 천장(스피커 등 포함)에 맞고 낙하한 볼을 포구할 경우에는 아웃, 포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로 간주된다. 파울지역에 맞은 경우는 포구하지 못하더라도 파울이다. 심판 합의 판정에 따라 공이 내야 페어 지역에 맞았다고 선언되면서 나지완은 고척돔 개장 후 처음으로 돔 천장을 맞힌 1호 안타의 주인공이 됐다.

"정확히 어디에 맞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한참 천장을 올려보던 나지완은 "어찌 됐든 1호 기록을 작성하게 돼서 영광이다"며 이색 기록을 작성한 소감을 밝혔다.

/고척=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곽정철도 돌아온다

'돌직구' 곽정철의 복귀가 임박했다. KIA 곽정철은 8일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7회 구원 등판, 1이닝 피안타 2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24개의 공을 던진 곽정철의 직구 최고 구속은 143km를 찍었다.

4월10일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첫 실전이었다.

양쪽 무릎 수술로 오랜 시간 마운드를 떠나있었던 곽정철은 지난 4월2일 NC와의 원정 경기에서 1792일 만의 세이브를

퓨처스리그 1이닝 소화

올리며 1군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4월5일 LG와의 홈경기에서도 친구 윤석민의 승리를 지켜주며 시즌 두 번째 세이브를 기록했지만, 손가락 혈행장애로 재활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다.

한편 이날 퓨처스 경기는 8-9, KIA의 재역전패로 끝났다. KIA는 3-5로 뒤진 8회말 3번 타자 황대인이 삼성의 여섯 번째 투수 권오준을 상대로 만루포를 터트렸지만 불펜진의 난조로 9회초 5실점을 하면서 승리를 지키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완투패 감독으로서 미안하다"

덕아웃 T 특특

▲냄새가 나더라 = 옛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었다. 7일 이종범 해설위원이 방송 중계를 위해 고척스카이돔을 찾았다. KIA 덕아웃을 찾은 이 해설위원은 장비를 챙기던 한 선수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를 해준 선수는 외야수 오준혁이었다. 두 사람은 KIA가 아니라 한화에서의 인연을 맺었다. 한화에서 코치와 선수로 만난 사이. 이 위원은 "냄새가 나더라"면서 오준혁의 잠재력을 보고 기대를 했었다고 말했다. KIA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웃음을 보인 이 위원은 오준혁에게 "잘해라. 일단 잘하고 봐야 한다"며 프로

세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다.

▲특별 이벤트 준비했니 = 은퇴식 유경현차 유동훈 코치가 은퇴식을 앞두고 있는 최희섭을 만났다. 최희섭은 8일 KIA와 넥센의 경기가 열린 고척스카이돔을 찾았다. 최희섭을 반기던 유동훈 코치가 "특별 이벤트는 준비했느냐?"면서 은퇴식 이야기를 꺼냈다. 최희섭은 오는 15일 한화에서 홈경기에서 서재응과 합동 은퇴식을 갖는다. 이에 최희섭은 "행님이시니까 그런 이벤트가 가능했다. 내가 공 던지고 재음이 형이 공을 치면 되지 않겠나?"면서 웃었다. 지난해 김상훈 배터리 코치와 합동 은퇴식을 했던 유동훈 코치는 자동차 장문 사이로 공을 던지는 이벤트를 선보였다. 창문을 통과한 공은 홈플레이트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상훈 코치의 미트로 파고 들면서 은퇴식 하이라이트로 남아있다.

▲감독으로서 미안하다 = 미안하다는 감독과 잠을 못 잤다는 주장이었다. KIA 양현종이 올 시즌 팀의 두 번째 완투패라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7일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8이닝 8피안타 1볼넷 7탈삼진 4실점(3자책)의 피칭을 했지만 경기 3-4, KIA의 패로 끝나면서 완투패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4월17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윤석민이 9이닝 2실점으로 완투패를 당한 뒤 두 번째 완투패. 이날 패배로 7번 채 선발 출격에도 첫 승을 챙기지 못한 양현종은 4패째를 기록하게 됐다. 8일 경기에서 앞서 취재진을 만난 김기태 감독은 "감독으로서도 미안하고, 내 자신도 위축된다. 위로 좀 많이 해주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주장 이범호도 "밤에 잠이 안오더라"며 패배에 대한 심경을 언급했다.

/고척=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슈퍼팡공' 김미현, 광주챔스필드서 골프 시타

내일 홈런존에서 홈플레이트 맞추기 이벤트

'슈퍼팡공' 김미현이 이색 골프 시타를 위해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오는 1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t전에 앞서 이색 골프 시타 이벤트를 연다.

'챔피언스 필드 챔피언스'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타 이벤트에는 '슈퍼팡공' 김미현과 골프 여자 국가대표 6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시타에 참가하는 국가대표는 박민지(현일고 2년), 박민지(보영여고 3년), 박현경(합영여고 1년), 윤민경(대전체고 2년), 이가영(장원사파고 2년), 임희

정(동광고 1년)이다. 이들은 챔피언스 필드 우측 외야석에 자리한 'KIA 홈런존'에서 티샷을 하게 된다. 홈플레이트에 설치된 원형의 '스트라이크 존'이 이들의 목표지점이다. 티 박스에서 스트라이크존까지 거리는 127m로, 선수들은 피칭 위치로 존 공력에 나설 예정이다.

티샷한 공이 스트라이크존에 안착할 경우 기아자동차는 최대 1000만원의 골프 유망주 육성 기금을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이벤트는 기아자동차가 타이틀 스



이스킬(Basecu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편 올해로 30회를 맞는 한국여자오픈은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킹캉'이 돌아왔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6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서 6회 투런 홈런을 쳐낸 뒤 홈 플레이트를 밟고 있다. 강정호는 이날 부상으로부터 232일 만에 연타석 홈런을 쏘아 올리며 메이저리그 복귀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연합뉴스

강정호 232일만의 복귀전서 홈런 2개...세인트루이스 천적 입증 "돌아와서 기쁘다...무릎 예전같지 않지만 경기 하는데 문제없어"

연타석 홈런으로 빅리그 복귀전을 화려하게 치른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기습 출전 시간을 떠올렸다.

강정호는 지난 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서 6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에 우월 투런포와 좌월 솔로포를 차례대로 쏘아 올리며 4타수 2안타 2홈런 3타점을 기록했다. 경기 뒤 강정호는 MLB닷컴,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불안하기도 했고, 기대되기도 했다"고 복귀전을 치르기 전 감정을 털어놓으며 "팀에 돌아와 동료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치르는 게 정말 기쁘다. 몸 상태도 좋고 내 역할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1-0으로 앞선 6회초 2사 2루,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세인트루이스 좌완 불펜 타일러 라이언스의 시속 145km 투심 패스트볼을 밀어쳐 오른쪽 담을 살짝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쳤다. 세인트루이스가 강정호에게 자신감을 안겼다.

강정호는 이날 이스가 2-3으로 추격하자 강정호가 또 한 번 해결사로 나섰다. 강정호는 8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케빈 시그리스트의 6구째 시속 151km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왼쪽 담을 넘겼다.

지난해 9월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1회초 수비 때 병살 플레이를 시도하다 주자 크리스 코글란의 거친 슬라이딩에 왼쪽 무릎을 다쳤고 결국 수술대에 오른 강정호는 232일 만에 빅리그 무대로 돌아와 연타석 홈런으로 복귀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복귀전 초반은 부진했다. 강정호는 2회초 무사 1·2루에서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의 초구 시속 154km 투심을 공략하다 3루수 양 범살타로 물러났다. 4회 무사 만루에서도 마르티네스의 초구 시속 154km 투심을 견드려 2루수 뜬공에 그쳤다. 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타석에서 팀 승리를 이끄는 홈런을 쳤다.

강정호는 "두 번째 타석에서 배트를 조금 늦게 내밀었다. 그래서 세 번째 타석에서는 조금 빨리 타격했는데 이것이 통했다"고 회상했다.

부상에 대한 우려도 지웠다. 강정호는 "무릎이 예전과 같지는 않다. 하지만 경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 느낌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방문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강정호가 홈런을 치자, 부시 스타디움은 침묵에 빠졌다. 피츠버그의 홈 PNC파크였다면, 강정호는 팬들의 환호를 한몸에 받을 수 있었다.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던 강정호는 8일에는 6번 타자 3루수로 출전했다. 3타수 무안타에 그쳤지만, 희생플라이로 이를 연속 타점을 거둬들였다.

1-0으로 앞서나간 1회 1사 만루의 첫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웨인라이트의 바깥쪽 컷 패스트볼을 결대로 밀어 우익수 방면 희생플라이로 3루 주자를 불러들였다.

/연합뉴스